

書面答辯書

○金平城委員

(質疑要旨)

경로우대석 활성화 방안

(答 辯)

□노약자·장애인석은 차량당 4개소(3인석)를 지정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 젊은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경로의식 결여 등 시민 참여 부진으로 일반승객들이 노약자·장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자거나 책과 신문을 보는 등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석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약자·장애인석”만 표기되었던 픽토그램을 “노약자·장애인을 위하여 비워둡시다” 라는 안내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동차 유리창에 부착하고 승강장 행선안내게시기 및 전동차 객실안내표시기에 홍보문안 표출, 열차 및 역사 계도방송, 시정홍보지 및 교통방송 협조요청 등으로 시민홍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서안내원 120명과 공익근무요원 713명을 매 열차마다 승차시켜 적극 지도계몽토록 하겠으며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기전 노약자·장애인의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승강장 승차위치 표시에 역당 4~8개소의 노약자 지정석 안내표시와 기둥에 픽토그램을 부착중에 있습니다.

○趙成大委員

(質疑要旨)

일일 수송인원 및 증대방안

(答 辯)

□'99 연간 일평균 수송인원(승차기준)은 815천명으로 지하철공사 2,754천명 대비 30% 수준이며 전역이 개통되는 연말에는 일평균 1,527천명, 완전개통 1년차인 내년에는 1,671천명('99.대비 2.1배, 지하철 대비 62%)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하철공사 운영 역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이 저조한 이유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수요유발이 많은 도심과 역세권 개발이 완료된 순환선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저회 공사는 외곽과 지선 개념으로 건설되어 역세권 개발 한계가 있고 서울시 인구의 감소 및 정체로 신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되지 않음에 기인하나,

※ 지하철공사 현수송은 전구간개통 후 10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지하철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 편의시설 확충, 쾌적한 환경조성, 고객의 기대를 앞서는 서비스향상 등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으로 신규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자전거보관소, 마을 및 노선버스, 횡단보도 등 연계수단을 조사, 지하철역 중심의 연계 교통망 형성을 위하여 시 교통정책 상임위 상정을 건의('99.12월), 협의중에 있으며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확충 : 송정 등 26역 47개소

-마을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 천호 등 14개역 14개노선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 화곡 등 26역 47개소

-택시승차대 신설 : 오목교 등 12역 17개소

-횡단보도 조정 : 마포 등 5역 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역명표기 : 방화 등 10역 27개소

○향후, 개통구간은 물론 역세권 변화시 지하철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등 연계수단을 확충, 지속적 수요증대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수송유발 및 영업증대 제고를 위하여

○단위조직(역)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시민 서비스향상과 체계적 수송수입 관리를 위한 수송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분석, 평가, 개선, 관리의 전과정을 Feed Back화하고

○광고승차권 판매로 영업수익 증대를 기하고, 승차권 구입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위탁판매제도를 확대, 승차권 구입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방안으로

○86역 전역사와 차내에 냉방설비를 완비, 28℃를 기준으로 가동하고

○에스컬레이터(41역 191대), 엘리베이터 (25역 51대), 휠체어리프트(25역 75대)를 운용

중에 있으나 심도, 환승거리를 감안하여 추가 설치하고 향후, 개통구간 전역사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 지하철 이용이 서투른 외국인 및 내국인의 목적지 안내를 용이하게 위한 역세권 관광안내소 확충(현 5개소를 매년 5개소씩 증설 운영), 안내입체지도 및 바닥방향 표지판을 설치하고 승객 편의시설의 컬러화로 안내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 역사 및 터널도상을 수시로 청소하고 고압살수 청소를 연1회 실시하여 먼지 비산을 방지하고, 강제 순환방식에 의한 급배기 실시로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토록 하며

□ 승객입장의 친절봉사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 서비스아카데미를 운영, 승객 응대요령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속적 실시하고
- 고객만족도 조사, 승객건의함 활성화, 모니터제 운영, 일일명예역장 제도 실시로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불편 사항을 수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전개통 원년인 올해에는 지하철역의 시민 생활 중심센터화 추진으로 편리하고 생동감 있는 지하철 문화를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1억1상가 조성, DDR설치, 항공·철도·고속버스권 판매 등 대표실을 교통종합창구로 조성하고, 역세권정보 안내게시기, 인터넷, 휴대전화 충전소 설치 및 문화행사 유치로 시민들의 직접 체험에 의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종합생활 공간으로 추진함으로써 잠재적인 승객수요 창출을 도모하여 수송인원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質疑要旨)

연계수단 확충방안 중 자전거보관소를 전역사에 설치할 의향은?

(答 辯)

□ 역세권 자전거보관소는 76역 222개소에 설치(2000년 2월 기준), 4,84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회 공사는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자전거 보관소의 신설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4역 22개소('99년 기준)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6역 8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 미설치 10역은 인도 협소에 의한 보행불편, 상가주민 반대, 공간협소, 통행량 극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 변화시 설치 예정에 있고

□ 의원님이 지적과 같이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대 등 연계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이고 최근 "지하철 중심의 연계교통수단 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도시정책심의위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 상정내역 : 자전거보관소 미설치역 신설 및 확충 건의(22역 28개소 634대)

□ 공사에서는 2월 29일 개통예정인 은수~신평구간에 11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설치요청을 해당구청에 의뢰하였고 향후, 개통예정인 53개 전역에도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적극 요청하여 역접근성 제고 및 승객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質疑要旨)

7월 운임인상이 안 될 경우, 영업수익 재산정 필요

(答 辯)

□ 2000년 저회 공사의 운수사업수익 예산은 전년대비 45% 수준이 증액(667억원)된 2,158억원으로 7월 1일 100원 인상(1구간 500원→600원, 2구간 500원→600원)을 전제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0년 운임 미인상시 결손액은 227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8월 인상시는 27억, 9월 인상시 63억, 10월 인상시 98억, 11월 인상시 138억, 11월 이후 인상시 180억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2000년 운임 미인상시 공사에서는 수입증대 노력과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 主要業務報告

「새 천년」經營戰略

□ 企業理念 - 「열린 未來로 즐거운 삶을 나르는 도시철도공사」

○ 21세기 희망찬 새시대 서울시민의 풍요로